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이학래, 편집인: 최진동
편집: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진모·배정환·서학수·양보진·이준용·
김화삼·Hong Sok(Brian) Kim

열정과 설렘 2012학번 새내기 입학식 열려



■ 서울대는 2012학년도 입학식을 3월 2일 종합체육관에서 갖고 총 7,102명(학부3,290명, 대학원 3,812명)의 신입생을 새롭게 서울대 가족으로 맞이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은 총 483명(학부328명, 대학원156명)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5일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및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대학의 비전과 향후 학교생활에 대하여 학부 신입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이학래 학장의 환영사 이후 동창회 및 CALSP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2월 16일부터 2박3일 동안 강원도 속초 설악과인리조트에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통해 하나 되는 농생대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2면에 계속)

제 66회 학위 수여식 개최



■ 2월 24일에는 제 66회 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총 5,214명의 학생이 학위를 받는 영예를 누렸다. 또한 졸업생들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바뀐 새 학위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전통 선비 의상을 본뜬 새 학위복은 서울대의 고유색인 파란색을 기본으로 가슴에는 서울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볼마크가 새겨져 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우리 대학 졸업생 이한빈(학부07)씨는 "학위수여식에 오니 졸업이 실감난다"며 "가족, 친구들과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우리 대학은 학사 236명, 석사94명, 박사32 등 총 36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여 농생대 위상을 빛낼 것이다.

<주요내용>

2면 _ 2012학번 신입생
3면 _ 수목진단센터 개원

4~5면 _ 농생대 연사이드
6면 _ 동문집방

7면 _ 언론에 비친 농생대
8면 _ 농생대 사람들

두근두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내기 새터의 열기

■ 우리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안내 및 학부도 간담회가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201동 101호에서 열렸다. 이학래 학장은 이날 신입생들에게 농생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워나가는 한편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농생대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상록의 아들 배우기와 학생·교무 업무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는 농생대 홍보영상물 상영, 교과과정 소개, 장학금 안내, 질의응답 등이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입생 김주완군(학사12)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혜택들을 들으면서 제가 농생대 소속이라는 것이 좀 더 실감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은 2월 16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속초 설악과인리조트에 머물며 선배들과 함께하는 새로배움터를 통해 선배배 간의 정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내기 인터뷰〉



김주완 (학사12)

■ 안녕하세요? 농생명공학부에 정시로 입학한

김주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선배가 농생명공학부에 진학하셔서 그때부터 서울대 농생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물과 화학을 배우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에 그 지식을 적용해서 공부한다는 점이 매력적

이었고, 제가 농생명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농생대를 다니면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 뛰어난 동기들 사이에서 공부하며 농생대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항상 농생대에 재학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범근 (학사12)

■ 안녕하세요? 농경제 사회학부에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송범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풀무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뒤쳐진 분야로만 여겼던 농업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미래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농촌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보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학생활 목표는 최대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전창후 교수, 제19회 화농상 수상



■ 전창후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농생대 초대 학장 화농 조백현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된 화농연학재단(이사장 류순호 명예교수)에서 수상하는 제19회 화농상을 12월 14일 교수회관에서 수상하였다. 화농상 수상 논문명은 Nutritional, Chemical and Physical Factors Affecting Somatic Embryo Formation and Germination in Pimpinella brachycarpa 이다. 화농연학재단은 우리나라 현대 농학의 선구자이며, 농업생명과학대학 초대학장을 지낸 화농 조백현 선생의 뜻에 따라 농업과학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는 후학들의 연구의욕을 북돋기 위해 매년 우수 연구성과를 이룬 신진학자들을 발굴, 화농상을 시상하고 있다.

서울대 첫 외국인 데이먼 무가빈 교수 퇴임



■ 외국인으로는 처음 서울대에 임용되었던 데이먼 무가빈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7년간의 서울대 생활을 마치고 2월 말 정년 퇴임했다. 조경계획·설계 분야 전문가인 무가빈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재직하다 2001년 서울대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는 1999년부터 외국인 교수를 임용했지만 무가빈 교수 이전까지는 모두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자였다. 무가빈 교수는 지난해 12월 초 마지막 수업 후 제자들과 함께 비공식 퇴임식을 열었다. 그는 “10년 이상 한국에 머물며 서울대와 학생들의 변화를 봤다”며 “공손했지만 부끄럼을 타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밤샘을 해서라고 과제를 해내는 노력은 호주 학생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산림청·서울대(식물병원)가 함께 여는 수목진단센터 개원

■ 서울시·산림청·서울대가 함께 운영하는 수목진단센터가 2012년 1월 12일 우리 대학 식물병원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식물병원(원장 농생명공학부 제연호 교수)은 「생활권 산림병해충 관리 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산림청 수목진료시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내에 수목진단센터로 지정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는 산림청과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과 전문 인력 확충에 힘쓰며, 우선 과제로 '서울시 권역별(4개 권역) 수목 병해충 조사 및 건강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수목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과학적인 수목 건강진단 체계를 확립 할 것이다. 개원식에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이돈구 산림청장, 서울시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농생대 오기봉 교무부학장, 제연호 수목진단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수목진단센터를 둘러보는 이돈구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과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맨 오른쪽)

농생대와 알버타대학 학술교류 양해각서 체결



■ 이학래 학장은 2012년 1월 27일 캐나다 알버타 대학을 방문해 John Kennelly 학장과 학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연구와 교육 부문에서의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학장 및 박은우 교수(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교수(농생명공학부), 캐나다 알버타대학 Carl Amerhein 교무처장, John Kennelly 학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 서울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알버타 대학교는 세계 순위 76위인 대학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가장 국제화된 대학이다. 이 MOU는 교환학생 파견, 농생명 관련 연구의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두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대와 CRD(베트남) 학술교류 양해각서 체결



■ 12월 19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정부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CRD(Center for Reg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와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생대 이학래 학장을 비롯한 집행부 교수들, 손준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장), 베트남 CRD센터장, 부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농생대와 CRD는 향후 산업 시설 및 현장 방문, 시설원예의 선진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농생대와 화중농업대학 학술·연구 교류 양해각서 체결



■ 2012년 2월 16~18일 이학래 학장을 대신하여 최진용 부학장(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정환 교수(농생명공학부), 안용준 교수(농생명공학부)는 중국 화중농업대학을 방문해 상호 학술교류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화중농업대학은 교육부 직속 '211공정' 건설의 국가중점대학으로 20여개 나라 및 국제기구·기구와 협력교류관계를 맺어 국제협력프로젝트 102여개를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지수사업으로 생산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식량·경제작물 생산기지로써 농산물 가공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중국에서 전반적인 농업 분야의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제 8기 CALS Global challenger

해외 선진 농업시설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CALS Global challenger. 이번 8기 CALS Global challenger에는 4개팀, 총 10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농업현장을 탐방했다. '숲 가꾸기' 팀(산림환경학 이수정, 김경란)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해외조림사업을 통해 얻는 환경적·경제적 효과에 대해 선진 지식을 습득했고, 'Agleaders' 팀(산업인력개발학 강다은 외 3명)은 미국 FFA Center와 농업계고교 방문조사를 통해 미국의 중등농업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AGRI-LOVER' 팀(원예학과 이충근 외 1명)은 네덜란드의 첨단 시설원에 산업탐방을 통해 국내 시설원에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Pellebi(펠레비)' 팀(환경재료과학 전성원 외 2명)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펠릿 생산업체 및 관련 기관 탐방을 통해 국내의 펠릿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CALS Global Challenger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8기를 거치며 29개팀, 총 77명의 학생에게 세계 농업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제 8기 CALS Global challenger

제23회 조경수 관리교육 개최

식물병원(원장 농생명공학부 제연호 교수)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제 23회 조경수 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조경수 관리의 최신이론과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조경수 관리 전문 교육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교육생들은 조경수의 생리, 주요 병해충관리,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이식기술, 토양 관리 등의 이론교육과 교내 캠퍼스 조경수 건강관리에 관한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는 110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였으며, 2000년 제 1회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4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제23회 조경수 관리교육 개최

대학원,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신설

2012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 협동과정 농림기상학(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전공이 신설되어 새로운 출발을 한다. 본 전공은 통섭을 추구하는 시스템 차원의 강의와 연구,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 농림생태 및 환경관련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함에 목적이 있다. 전공주임은 조정·지역시스템공학부의 김준 교수가 겸보 임용되었으며, 조정·지역시스템공학부의 박승우, 이인복, 최진용, 강문성 교수, 식물생산과학부의 이변우, 김광수 교수, 산림과학부의 김현석 교수, 농생명공학부의 박은우 교수,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임규호 교수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의 김영오 교수가 본 전공의 겸무교수를 맡게 되었다.



대학원,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신설

농생대 집행부 동정

■ 농생대 집행부는 2012년 1월 11일 강원도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방문하여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은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첨단지식 창출의 핵심 기반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연구의 허브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집행부평창그린바이오 방문



집행부 남부학술림 방문

농생대 집행부는 2012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광양의 남부학술림을 방문하여 학술림 사업과 현황을 점검하였다. 현황보고가 끝나고 집행부는 새롭게 단장한 심원관리소를 둘러보며 환경개선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후 직전관리소, 연곡관리소, 추산시험장 관찰원을 시찰하며 현장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학대 학장은 직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11년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남부학술림 무상 양여를 위해 기울여준 노력에 감사하고 남부학술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준공을 앞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목장

그린바이오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를 위해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은 총사업비 약 2천6백억 원을 투자 하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약 278만㎡(84만 평)의 규모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원장 조성인 교수)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구단지의 총괄 운영과 관리 및 산학협력 연구지원을 위해 서울대 본부 직할 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하 '그린바이오연구원')'이 2011년 4월 29일자로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에는 조성인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부원장에는 이성우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임명되었다. 2012년에는 기획실장에 양태진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산학협력실장으로 이기원 교수(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임명되었고, 이병근 사무관(행정실장)을 포함하여 2012년 3월 현재 5명의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린바이오연구원은 7개 분야의 연구소와 행정실, 기획실, 산학협력실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지역대학협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바이오연구원의 7개 연구소는 농생대를 중심으로 자연대, 수의대, 의대, 약대, 간호대, 치대 등 관련 단과대학 교수들의 참여를 통하여 친환경축산연구, 건강기능성식품연구, 종자생명과학연구, 식물대사공학연구, 그린에코빌리지연구, 그린바이오인증분석, 웰니스케어, 이종장기이식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향후 각 연구소는 관련분야 기업유치를 통한

산학연구를 활성화하고 그린바이오 연구원의 규정 개정을 통해 7개 연구부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길에그리퓨리나, SPC그룹, 이지바이오 등 10개 기업과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여 개 기업과는 산학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7개 연구소 중 지난 2월 17일에 '친환경축산연구소'가 가장 먼저 개소식을 가졌으며 오연천 서울대 총장의 축사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한 3시간 이상에 걸친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통하여 연구소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각 연구소 개소와 더불어 산학협력 기업유치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평창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친환경 축산연구소 개소 심포지엄

따뜻한 세상을 위한 작은 나눔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8대회장 (축산65)



2011년 12월 NGO 최초로 신임회장을 공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화제를 모은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8대 회장에 우리 대학 양호승 동문(축산65)이 선임이 되었다. 양 동문은 우리 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국내 기업에서 임원을 지낸 전문경영인이다. 양호승 동문은 은퇴 후 남을 돕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이뤄져 기쁘다고 회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10년 전쯤 저의 아들이 월드비전 1:1 결연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를 후원하면서 즐거워하던 모습을 보았죠. 그러다 아들이 후원하던 소년을 저도 함께 후원하게 되었는데 소년의 사진과 편지를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우리의 도움이 큰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어린이에게겐 일생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동문은 월드비전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 대북사업에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11년 동안 꾸준히 농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씨감자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 동문은 또 북한 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교육, 의료 분야까지 사업의 폭을 넓히고 지역도 함경도, 평안북도까지 확장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 동문은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그 전문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아, 세계 식량계획의 유일한 공식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라고 소개하고 “규모 면에서 가장 큰 NGO이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제가 지금까지 기업에서 배운 마케팅 노하우,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월드비전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농생대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즐긴다는 양 동문은 “그동안 길러온 체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며 국제사회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일조할 생각”이라며 “3년의 임기 동안 월드비전의 국내외 활동을 활기차게 이끌어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농수산물식품으로 한류 열풍 일으킬 터

박종서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농학 75)



“서둔동 시절 5월의 화사한 봄날, 농대를 시골벽적하게 만든 것은 학교 주변에 있는 딸기밭이었습니다. 딸기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추억은 딸기 서리였죠. 딸기들 앞에 놓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호기를 부렸던 서둔동 시절이 항상 마음의 고향으로 남모를 미소를 짓게 합니다.”

국립식품검역원장을 거쳐 현재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로 취임한 박종서 동문은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수출과

유통, 특히 맛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2007년까지는 3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으나, 최근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76억9천만불을 기록하여 한 해 수출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100억불 수출 목표를 세우고 지난 1월 초부터 ‘땀 없는 마

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동문은 “한·미 FTA 등으로 국내 농수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수출 100억불 달성은 국내 농수산물식품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활로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식, K-POP처럼 식품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식품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동문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생활신조는 ‘수처작주(隨處作主)’라고 소개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일에 애착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동문은 “1970년대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의 핵심 과제는 주곡 자급이었지만, 현재는 질병 예방과 인간의 수명 연장이 화두인 ‘웰스케이 3.0시대’에 걸맞은 과제를 선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리적 개념의 국경이 사라질 미래에 전 세계를 무대로 ‘Beyond Korea’를 실현할 용기와 비전을 갖춘 동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생대 수원캠퍼스 일부 부지(기획재정부 소유), 경기도로 이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수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중 기재부 소유 부분을 경기도 소유인 안양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맞교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승인해 줄에 따라 교과부와 경기도는 양 부지를 맞바꾸기로 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농생대 부지 중 교과부 소유의 11만5000여㎡의 부지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양 기관은 다음 달 중 부지교환 방침을 확정하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뒤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 43만㎡는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1150억원, 농생대 전체 부지 26만7000㎡ 중 기재부 소유 15만2000㎡는 1060억원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 44만4000㎡(공시지가 84억원)를 포함해 교환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3년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교과부 부지에는 서울대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등 연구지원시설로 활용되고 있던 반면 기재부 소유 부지는 시설물을 폐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국립대학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또한 건물이 노후됐으나 법상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립대를 지원할 수 없는데다, 교과부 역시 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있는 경인교대 캠퍼스에 건물 신축 등을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농생대 부지와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 농촌진흥청 부지를 함께 농업·바이오연구개발(R&D)센터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2012년 1월 4일〉

김치파스타 등 개발해 '주식화' 힘쓸터 세계김치연구소 박완수 소장(식품75)



"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발효음식입니다. 김치를 산업화해 우리 식품산업의 대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 성남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만난 박완수 소장(56)은 올해도 '김치 세계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는 김치제품 개발뿐 아니라 각 업체와 단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김치 세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박소장은 이를 위해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200여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치 기호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내 다문화가정의 가정별 식문화 변천사를 조사해 이를 계량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소장은 "김치의 세계화란 단순히 김치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김치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김치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을 조사해 자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소장은 '김치의 주식(主食)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외

국인들이 김치를 단순한 부식이나 기호품이 아닌 주식으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치파스타나 김치햄버거, 김치패티 등을 개발해 이를 표준화하는 일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치는 한식 가운데 가장 세계화된 음식이에요. 실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김치를 한식의 대표 메뉴로 꼽을 정도죠. 따라서 우리 전통 김치의 원형은 유지하되 '냄새 없는 마늘'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들 제품을 표준화하고 계량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서울대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박소장은 1991년 한국식품연구원 응용미생물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김치와 인연을 맺은 이래 김치의 규격화를 비롯해 포장용기 개발, 미생물에 대한 연구 등 김치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로 우리 김치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자타공인 '김치 박사'다.

오는 2012년 10월 광주광역시 신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박소장은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춘 신청사로의 이전이 완료되면 세계김치연구소는 발효식품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올해에는 김치 세계화와 함께 국내 김치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동문동성]

- ▶ 진중현(농학91)동문은 2012년 1월 15일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scientist에 임용됐다. 한국인으로 IRRI의 정규 staff로 임용된 것은 진중현 동문이 3번째이며, 진박사는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벼 분자유종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 김남균(임학78)동문은 2011년 12월 27일 산림청 차장에 임용됐다.
- ▶ 김학원(농공학81)동문은 1월 1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에 임명되었다.
- ▶ 이학재(축산학83)동문은 1월 4일 박근혜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 ▶ 윤석후(식품공학73)동문은 1월 11일 한국식품과학회장에 취임 하였다.

- ▶ 허경태(임산가공학81)동문은 1월 26일 강원도 동부지방 산림청장에 임명되었다.
- ▶ 허건양(원예학81)동문은 2월 3일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에 임명 되었다.
- ▶ 유지수(농학과71)동문은 2월 7일 국민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 ▶ 김용식(조경학과74)동문은 2월 14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에 취임 하였다.
- ▶ 김영배(원예학과80)동문은 2월 23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장에 임명 되었다.
- ▶ 이병호(농경제학과75)동문은 2월 24일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교수동성]

- ▶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는 2012년 2월 8일 제주도에서 UNDP 과제를 체결하였다. 이 연구과제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문가 및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재정립 및 산림환경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RDD)준비를 위해 필요한 측정·보고·검증 및 모니터링(MRV&M) 기술과 참여형 산림 거버넌스 능력 배양과 새천년발전 목표의 수행을 위한 국제 원조에서 한국의 강화된 위치, 특히 남남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월 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임학회 제 153차 정기총회에서 제 20대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임학회는 1961년에 설립된 산림 분야 최대 학술단체로, 1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임학회지와 국제 학술지(Forest Science Technology)를 발간하고 있다.
- ▶ 노재선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11년 12월 22일 농업수산물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도, 김제시가 주관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별 투자설명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노재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0차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도 개최됐다.



- ▶ 노상하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2012년 2월 16일 농업기계학회 학술대회에 참가 하였다. 이날, 노상하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는 농산식품가공 기계 분야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 ▶ 김의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11년 한국지역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령화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수도권·비수도권 CGE 모형의 활용"이라는 논문으로 학술상 대상을 수상 하였다. 이 학술상은 학회 투고 논문 중 가장 우수한 상이다.
- ▶ 이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12년 2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선진화포럼 62차 월례토론회에 참가 하였다. 이 교수는 "중국의 노동집약적 농산물이 우리 가공식품 원료와 대형 급식소의 식재료 등으로 유입될 때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생활실 T.880-4531 F.873-6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7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6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6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6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물·동물생명공학부 T.880-4889 - 식물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8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명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실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동기지원 T.880-4845 F.880-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80-4996 F.871-1361 농업생명소재연구소 T.880-48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소 T.880-4960 F.873-4960 식물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소 T.880-4945 F.873-541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0-4528 교육연구실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 T.880-4998 F.886-49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학 T.880-4824	

[동창회 소식]



▶2012년 신년교례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정윤환)는 2012년 1월 10일(화)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12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신년교례회에는 특히 선운정 학생회 대표를 비롯하여 모교 학생회 9명이 참석하여 행사 진행을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선배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등 신년교례회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 자리에서 정윤환 동창회장이 학생회장에게 모교 학생회 격려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원로 동문들이 축하 사투리 컷팅을 하였고, 모교 축산학과를 1948년에 입학하신 송환창 선배님이 새해 소망을 담은 건배제를 하였다. 참석한 동문들은 준비된 식사를 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1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진행된 59, 60학번 주관 2012년 신년교례회는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한 뜻 깊은 자리였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 [대외협력·홍보팀] (T. 880-4510, calsweb@snu.ac.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